

우리 동네 푸른
이 가게 어때?

공원기사식당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852-8(남리 137-7)
문의 053-615-4451

가정집 손맛 가득한 ‘논공 백반’

낮에는 여전히 덥고, 저녁에는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을날… 하늘이 화창한 천고마비 계절을 실감하게 한다.

나들이와 맛난 음식이 함께한다면 오늘 하루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보낼 것이라고 믿고, 맛난 음식이 있는 논공 ‘공원기사식당’을 소개한다.

위치는 비슬로 논공 삼거리 인근 논공 화훼단지(논꽃단지) 맞은편에 있으며 방문 전에 지도로 위치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하기도 편하며, 가게 주변으로 길가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 주차 걱정은 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

가게 상호에서 느껴지듯이 기사식당은 지역에 숨어있는 맛집으로 가성비를 자랑하는데 이곳의 메뉴는 정식, 된장찌개, 두부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돼지찌개, 오징어찌개, 돼지볶음으로 주문이 가능하며 모두가 다른 곳에서도 먹어본 맛들이라 돼지볶음을 선택했다.



기본 찬은 8가지 정도 제공이 되며 메인요리 선택이 아니라도 충분히 밥 한 공기 순식간에 있을 만큼 맛있다.

돼지볶음은 살짝 달달하면서 매콤한, 하얀 쌀밥과 함께 먹기에 딱 어울리고, 쌈으로 먹기 좋은 돼지볶음 양념까지 3박자가 어우러져 풍성한 밥상에 풍요로운 기분까지 만족스런 맛이고 자연스럽게 각각의 음식들에 손이 절로 간다. 공기밥 역시 기본의 한 공기보다 많은 양이지만

공깃밥과 반찬을 한 번 더 먹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식욕이 폭발한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먹나 1인분 1만 원 이상하는 식비… 메



뉴 따라 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메뉴인 정식, 두부찌개, 된장찌개는 8,000원으로 가성비 역시 꽤 좋다. 여러 SNS에서 블로거들이 많은 칭찬을 왜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기사식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맛과 가성비를 모두 가진 공원기사식당! 집에서 해주는 음식인 것처럼 점심 한 끼 잘 먹고 만족스런 마음

으로 오늘도 오후를 힘차게 보낼수 있겠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번 발걸음을 이곳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인근에 달성보도 있으며 낙동강 주변으로 논공 꽃단지에 해바라기와 핑크뮬리가 조성 잘 되어 있어 식사 후 산책 한 번 가 보는 것도 너무 좋을듯하다. 정말 봉 객원기자



다사읍 새마을회 ‘현 옷 모으기 활동’

다사읍 새마을협의회 · 부녀회(협의회장 홍종대 · 부녀회장 조영숙)는 지난달 31일(목) 자원 재활용 운동의 하나로 ‘현 옷 모으기 활동’을 전개하여 20여 명의 새마을회원들과 함께 현 옷을 수거하고, 미관 개선을 위해 현 옷 수거함들을 정비했다. 홍종대 · 조영숙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익금은 사회봉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가족 실버 채널

문의 1588-0669 푸른방송 99번 (디지털) KT 138번 SK Btv 269번

아름다운 나의 인생